



아리랑축전 주제공연 '빛깔아리랑' 연출 유희성 씨

80년 5월 뜨거웠던 햇불행진 감동 안긴다

지난 29일 광주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연실.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인 창작 뮤지컬 '빛깔 아리랑'(예술감독 박윤모) 출연진들의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100분간 진행된 리허설 내내 연습실 한편에 앉아 있는 활찬 모습의 50대 남성이 눈에 띈다. 이번 공연 연출을 맡은 유희성(56)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뮤지컬스쿨 원장이다.

'빛깔 아리랑-다시 불러야 할 그 노래'(4일 오후 7시30분, 5일 오후 3시 광주문화회관)는 굴곡

단에서 20년간 배우로 활동했지요. 운이 좋아서 인지 주로 주연을 맡았고, 그 덕분에 연출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배우 시절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익혔던 여러가지 테크닉은 연출가로 변신한 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무용, 재즈, 발레, 탭댄스 뿐 아니라 대금, 판소리, 사물놀이까지 못하는 게 없다.

서울시뮤지컬단장 등을 맡아 중앙무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고향인 광주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는 유 원장은 이번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을 통해 오랜만에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됐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광주에서 몇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 때문에 함께 작업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습디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던 광주시립극단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오면서 수십 년만에 고향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큰 재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 '피맛골 연가'(서울), '화성에서 꿈꾸다'(경기), '투란도트'(대구) 등 지역별 대표 브랜드 공연을 성공시킨 그가 이번 광주아리랑축전 주제 공연을 맡으면서 기대감도 크다.

"대구의 '투란도트'나 서울시가 만든 첫 뮤지컬 '피맛골 연가' 등이 성공한 것을 보면서 고향인 광주에도 이같은 브랜드 공연이 탄생하길 꿈꾸고 있었어요. '빛깔 아리랑'이 초연작이기 때문에 검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민족의 숨소리와 한이 아리랑의 운율을 타고 글로벌 공연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는 이번 공연이 끝난 후 한·중 공동 창작뮤지컬 작업에 올인 할 계획이다.

"짧은시절부터 우리 색깔이 묻어나는 창작뮤지컬을 만들려다 계획해 왔었고, 이번에 중국측과 함께 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면 2015~2016년께 무대에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5일, 광주세계아리랑축전

가슴으로 부르는 희망의 노래

2013광주세계아리랑축전은 '가슴으로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빛고을 아리랑'을 주제로 3~5일까지 금남로 민주평화회의 광장(옛 전남도청 앞)과 금남공원,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3일 오후 3시부터 금남로공원 일대에서 시민 한마당으로 시작되는 행사는 오후 6시45분부터 금남로 민주평화회의 광장 특별 무대에서 본 행사를 진행한다.

1부 '무등의 빛'에서는 The 광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이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하며 오정해, 최인경이 함께하는 '광주 비나리'를 선보인다.

2부 '한민족 아리랑'에서는 오정해·유지숙씨 등 소리꾼들이 진도 등 국내 대표 아리랑과 연변 아리랑을 선보이며, 마지막 3부 '아리랑요'에서는 인기 가수 2AM, 달샤벳 등 아리랑 광대패와 주최측이 공모한 아리랑 춤사위 선정팀, 클래식 돌림이 어우러진 '한복·오방색 물결'을 만난다. 또 시민과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아리랑수월래', '아리랑 난장'이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진다.

4일과 5일에는 주제공연 '빛깔 아리랑'만 무대에 올린다. 문의 062-670-797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박혜순 초대전 1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서정적 풍경 남도의 정취

남도의 정취와 삶의 풍경들을 색채의 운율로 꽃피우고 있는 서양화가 박혜순씨가 1~15일 무등현대미술관에 초대돼 개인전을 연다.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강진에 (康津愛) 살으리랴다'를 주제로 현재 살고 있는 강진 미산마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화폭에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림에 녹아든 풍경과 정취는

작가가 사랑하는 것들이다. 수많은 개와 고양이, 닭, 토끼 그리고 드넓은 꽃밭은 모두 박씨가 기르고 가꾸는 가족이다.

때문에 원숙하고 세련된 색으로 표현된 강진 바다와 꽃, 새, 여인, 나무, 물고기 등 서정적 풍경과 자연은 진한 색 속에서 한없이 사랑스럽게 그려졌다.

"다양한 색을 통해 자연의 생명과 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전남여고와 조선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박씨는 남도 서양화 1세대인 임진순 화백 등에게 회화 수업을 받았다. 이후 잠시 붓을 놓았던 작가는 지난 90년대부터 강진에서 수채화, 유화, 드로잉뿐만 아니라 테라코타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며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전시 개막식은 1일 오후 6시다. 문의 062-223-667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홍초밭 일우'

화순 모후산 도원사 창건 7주년, 내일 소녀소녀가장뜰기 공연

달 밝은 가을 밤, 고즈넉한 산사음악회

가을의 정취가 더해가는 고즈넉한 산사(山寺)에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추억을 만들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화순 모후산 도원사(주지 진철스님)는 창건 7주년을 맞아 2일 오후 2시 1080 연등불사와 함께 제4회 소녀소녀가장뜰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모후산 풍물단의 지심밭기로 시작되는 음악회는 1부 소녀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2부 문화공연, 신도 노래자랑, 3부 신바람 이바사, 정현 등 초청가수들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올해 개원 7주년을 맞는 도원사는 지난 2007년 창건한 후 매년 지역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대제

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진철스님은 "지역 소녀소녀 가장들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어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두루 동참해 격려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1-372-104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7일 '싱글빙글쇼' 공개방송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싱글빙글~."

MBC 라디오 '강석, 김혜영의 싱글빙글 쇼'(FM 93.9MHz)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맞아 오는 7일 오후 12시20분부터 2시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광주에서 싱글빙글-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현장에서!"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개방송은 초청 가수 특

별 공연과 디자인비엔날레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초대 가수로는 '님과 함께'의 남진, 광주 출신 '엔가의 여왕' 김연자, '어머나' 장윤정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또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이사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를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이날 공개 방송은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문의 062-608-422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다음달 28일까지

50% POWER SALE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